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복음의 내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된 소식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복음’이란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인 것은 그 복음이 영원히 죽을 자들을 살리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이미 전했던 이 복음을 다시 알리고자 합니다.

1.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서서 살아갑니다(1절). 또한 복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되게 믿는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2절).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모든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참고. 요삼 1:2).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다시 알리고자 하는 복음은 바울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전해 받은 것으로서, 무엇보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입니다(3절). 그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3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인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신 분입니다(요 1:29).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고 씻음 받았습니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4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22절).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52-53절).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2.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롬 1:16).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믿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위해 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 드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음에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복음은 질리지 않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다시 알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